

이로에 썩 향로

17세기 유명한 도예가인 노노무라 닌세이가 만든 수평을 본뜬 도자기 향로로,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교야키는 에쓰케(도자기에 그림·무늬를 그려 다시 굽는 것)를 특징으로 하는 교토에서 제작된 도자기로, 닌세이는 이 분야를 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닌세이의 우아한 작품들은 다도 도구로써 상급 무사들에게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이 이로에 썩 향로도 그렇지만, 현존하는 초기 교야키 작품들은 대부분 다기나 차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회(차모임)에서는 주최자인 주인이 계절에 맞는 꽃 등의 장식물로 다실의 도코노마를 꾸밈니다. 전통적으로 썩은 봄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로는 봄 다회에서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닌세이의 뛰어난 기량이 여러 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좋은 예 중 하나가 깃털입니다. 여기에는 썩의 깃털이 '이로에'기법을 사용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로에는 닌세이가 살던 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된 획기적인 장식기법이었습니다. 이로에란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색유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저온에서 재벌구이하어 두 겹의 유약을 정착시키는 기법입니다. 안료는 녹거나 굽는 과정에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특성과 온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썩 조형에도 뛰어난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인 썩의 모습에서는 마치 살아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닌세이는 점토를 정성스럽게 곁쳐 쌓아 올려 이를 구현했습니다. 더욱이 썩의 긴 꼬리는 점토의 무게로 인해 아래로 처지거나 굽는 과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수평으로 완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꼬리 안쪽에 2개의 작은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닌세이가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꼬리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닌세이는 당대의 뛰어난 도공일 뿐만 아니라 도자기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인 '도인(陶印)'을 작품에 새기기 시작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도공이 이름 없는 노동자에서 이름을 가진 예술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썩 향로에는 뚜껑 안쪽(연기가 나오는 부분 옆)과 바닥에 닌세이의 도인이 있습니다.

정교하게 표현된 꺾기의 조형과 뛰어난 기술이 구사된 아름다운 색채가 높은 평가를 받은 닌세이의 꺾기 향로는 1951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닌세이의 작품인 '이로에 암꺾기 향로'와 함께 미술관에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